

스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계행을 청정히 하십시오. 자비하고 보살행을 해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그간 계를 좀 가볍게 다루었고, 또 여겨 왔습니다. 앞으로는 계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계는 위없는 깨달음의 관문이 됩니다. 천상에 오르는 사다다리가 된다 했어요. 생사의 바다를 건너는 배나 뗏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계로 인해서 정(定)이 생기고 정으로 인해 혜(慧)가 나타납니다. 계행이 없이는, 삼매를 뒀는다 해도 번뇌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새 남방불교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바로 계행이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무어스님은 "부처의 경계를 체험하는 데는 선(禪)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약 30여 년 전 해인사에 들어가신 지월(指月) 스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누더기를 입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쑥도 조용조용,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 같이 느리게 걸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고 언제 보아도 하심하고 겸손한 자세였으며, 당시 승좌들에게도 누구 보살님, 아무개 스님하고 불려서 제자들이 부끄러워 했지요. 인육이 대단해 화내는 것을 누구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말씀 한 마디 만다, 행동 하나 하나까지 '중남'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 거룩하고 모범적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지금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없어도 행동으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스님이라면 지월 스님처럼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공경심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스님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게 되고 주변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게 되지요. 더 대단한 스님은 짐승에

계도 느끼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선 수행은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은 반드시 해야 하고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실천구(實實)해서 마음을 두지 않으면 불교의 깊은 진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고귀한 말씀이고 중생들에게 노파심절한 말씀이지만, 조사 스님의 말씀처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고 밖에 별도로 전한 문자를 쓰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견성성불의 경지 그 경계를 불교의 근본진리라 하는데, 그 자리는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법(心行處滅),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작용이 멸하는 곳에서 발견되는 도리입니다.

그 경지는 부처님도 말할 수 없고, 어떤 문장기도 표현할 수 없고, 명 용변기도 입을 열 수 없어요. 그 경계는 부처님이 오면 부처님을 치고,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셔 보아야 같듯이 해소가 되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배고픔을 면하듯이 그 경계는

佛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자기의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대단한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이라 합니다. 마음공부는 얼마나 발심했느냐가 중요하합니다. 수행은 참으로 발심한 사람에게는 의외로 쉽게, 바로 되지만, 발심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어렵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깨쳐 20대에 선지식이 되어 도인행세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평생 고생하였으나 별 이익이 없는 수행자도 있습니다.

마음공부 하는 데는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도 수행을 하면 깨칠 수 있다. 나도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 참선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다. 선 중에서도 화두참선이 최상승 법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온전히 믿어야 해요.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사랑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도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으로 끝이 나고 진정한 믿음으로써만 불법의 대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무의 뿌리에 비유할 수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튼튼할수록 울적임이 없이 높고 크게 자랄 수 있듯이 믿음의 힘이 크고 깊을수록 그 열매가 큼니다. 요즘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이 큰 병통인데, 믿지 못하면 천불(仟佛)이 출현해도 어려워요. 종교는 믿는 것만큼 이익이 있습니다.

간화선 현대인에 알맞는 수행법 마음공부엔 큰 발심·신심 필수

오직 스스로 체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의 경계를 체험하는 데는 선(禪)이 우선합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맑게, 밝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 데는 화두참선법이 최상승법입니다. 화두참선에 대하여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상승법이나, 최고의 법이나 하는 것은 확실히

하여 견성성불하는 데는 화두참선을 능가할 수행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화선(禪話禪)은 현대인에게 알맞는 수행법입니다. 현대인은 근기도 하열하고, 신심도 약하고, 발심도 못한 데다, 간절하고 성실한 마음도 없으니 수단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는 활재어가 필요하듯이, 수행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트가 필요하듯이 현대인에게 필요한 수단이 화두입니다. 한국 불교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간화선입니다.

마음공부는 큰 발심(發心)과 큰 신심(信心)이 필수적입니다. 말만 들어도 설레이는 말이 발심입니다. 흔히 발심하라, 발심하지 못하면 이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마음 깨닫는 데는 발심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인은 "화두 안 되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발심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라" 하였지요. 발심이란 발보리심(發菩提心)을 말합니다. 보리란 견성(見性)하여 성불(成

불교가 인류에게 베풀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선(禪)입니다. 과학이 더 발달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더 좋아지면 사람들은 서서히 종교를 멀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장수에는 더 집착을 할 것이며,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행복해질 수 있는 수행 쪽으로는 관심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미래 학자나 선지자들이 불교의 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선원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화두가 안 되면 발값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화두가 된다는 것은 화두에 진의가 나서 일체의 번뇌와 망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지, 즉 마음이 그 정도로 묶여지지 않으면 발값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맑고 또렷또렷한 상태가 되어야 깨어있는 삶이라 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남자가 탐마허려 가면 대뜸 "너 화두가 몽중일어(夢中一如 되냐?)고 물었어요. '몽중일어'란 화두가 꿈속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들리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런 경계가 되면 상태를 하고, 그 정도가 안 되면 상태도 안 했다고 합니다. 몽중일어는 되어야 겨우 화두를 이야기할 수 있고, 불발을 입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선삼매(禪三昧)는 꼭 들어보세요. 그 래야 불교의 진수가 뭐다, 불교의 근본진리가 무엇이 라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요. 옛 어른들은 이 법을 위하여 몸통이를 잊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조금도 후회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aster@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ao@buddhapia.com



지록스님의 스님이 이야기

법정스님 (상)

시골 사진관에 법정 스님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아마 불일이 있어서 마음에 내려왔다가 사진관에 들러 필요한 사진을 찍으신 모양이다. 시골은 좁아서 금방 소문이 난다. 법정 스님 사진이 시골 사진관에 걸려 서울에까지 알려졌다.

"하하, 사진이 그런데 실물 현품이면 어떻겠어요?"

"유명세도 대단할 거예요." 사실 불일암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책을 보고 찾아온 한 사람이 법정 스님께 여쭙었다.

"스님, 법정 스님을 보러 왔는데요. 스님이 꼭 법정 스님 같습니까." 법정 스님이 대답하였다.

"아, 그래요? 더러 법정 스님과 비슷하다는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다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법정 스님을 보러 왔는데... 어디 계시니까?" 그러다가 불일암을 내려가는 편백나무 숲길에

되는 일일 것이다. 바람처럼, 물처럼, 흐르는 구름처럼 지내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밭이 닿는 데까지 찾아온다. 처음에는 좋으나 나중에 피해를 입히는 사제가 한 둘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스님을 위해 약을 가져왔다. 귀한 응답이라한다. 그는 큰스님네 문턱을 드나들면서 가져 응답을 드리고 용돈이며, 글씨 등을 받아 행기곤 하는 '진문 곧'이었다. 간이 나쁜 사람에게 특약이라니 더욱 고마울 수밖에 없었다. 그가 떠나간 후에 스님은 그것이 가져 응답인 것을 알았다.

스님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도 그저 웃을 수밖에 없다.

다른 이야기인데, 나는 법정스님께 늘 이런 생각이 든다.

송광사 원주로 여름 안겨 용상방에 율렀을 때였다. 그때가 불일암 공양주를 마친 뒤였던가. 스님이 대중 공양버로 내게 봉부를 건네주고 가셨다. 찰밥 등 맛있는 공양을 송광사 대중 스님들에게 지어드리고, 절 살림에도 보태 쓰라고 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 적지 않은 돈을 잃어버렸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다. 스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 "그래, 전생 빚 잘 갚고 대중 공양도 잘 했어."

대쪽같은 성품...반다한 일 싫어해 '유명세' 피해 산속토굴서 홀로 수행

돈에 관련된 일화가 또 있다. 광주에 나가 연장을 사 가지고 돌아왔을 때였다. 석공의 돌일을 필요한 연장들이다. 진돈을 그냥 만들짜리에서 끊고 드렸다. 만원 아레 천 단위의 숫자는 반울림하듯 한 셈이다.

"뭘 샀어?" 저녁에 물으신다.

"네, 오람마, 대쪽, 호미를 하나씩 샀지요. 나머지 여비와 밥값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이다. 스님이 또 물으신다.

"뭘 샀어?" 저녁에 대답한 것과 같이 대답한다.

"네, 오람마, 대쪽, 호미를 하나씩 샀지요. 나머지 여비와 밥값이었어요."

그 뒤 점심때 세번째로 물으셨다. 노트에 잘 적어서 올리자 더 말이 없으셨다. 계산을 우물쭈물 기면 용서하지 않는 성품이신줄 뒷날 알았다.

물은 건너뵈와 깊이를 알고 사람은 지내뵈와 속을 안다고 한다.

조개면 짝 소리를 내고 갈라지는 대쪽의 성품. 이것이 법정스님의 성품이다. 반다한 일에는 도저히 참지를 못하신다. 그래서 혼자 산속 토굴 아람에서 평생을 지내시는 것 같다.

■ 송광사



그림·문병성

서 한 스님을 만났다.

"스님, 불일암에 법정 스님 안 계시어요?" 불 일 보려고 산에 오르는 송광사 스님이 대답하였다. "아니, 계시는데요."

그 사람은 가우똥하고 말하였다.

"키가 큰 스님 한 분만 계시구 아무도 없어요."

"하하, 그 분이 법정스님이세요?"

"네? 그 분이?... 하하하."

강원도 평창 생활에서는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 갑자기 미끄러져서 뒤로 발뻘 넘어져 뒷골을 다쳤다. 법정 스님이 냇가의 미끄러운 돌 위를 잘 못 밟아 그만 실족을 하고 만 것이다.

"아,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이구나!"

스님은 쓰러져서 환함을 누워 있다가 정신이 들자 이런 생각을 하었다고 회고하였다.

"마음을 약을 사려 가려다가 그만 두었어. 웬 중이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할 것 같아서..."

"국민 스님"은 약 하나 사기도 힘들다. 유명하다는 점은 어찌런 수행자에게 크게 집이

친환경을 선도하는 기업 유창!
날벌레, 모기, 나방 등 각종 해충퇴치!

해충잡는 박멸기

날벌레, 모기, 하루살이 등 각종 날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자외선 3파장 전 광범포를 이용하여 벌레를 유인, 끈의 흡입력으로 편아 위치한 채집망으로 날벌레를 빨아들여 냄새나 향, 소리없이 해충을 박멸시키는 장치이다.

●제품의 특 · 장점

- 실내에 하나만 걸어 놓으면 모기와 날벌레를 썩 잡아 버린다.
- 조명결함으로 동시 사용할 수 있으며 흡입식으로 냄새와 소리가 전혀 없습니다.
-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빛을 발산시켜 팬으로 빨아들여 모기, 날벌레, 나방, 해충을 박멸시키므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식 점진형으로 제작되어 전기가 경제적입니다.
- 전원을 끄면 서터팬이 작동되어 당하게 되므로 포함된 해충들이 제품 외부로 나오게 된다.
- 모타의 용량이 크며 끈의 직경이 커서 흡입력이 뛰어나며 넓은 반경의 해충을 유인하여 박멸한다.

실용 신안등록 출원 제 0291020호

유창 주식회사
www.ryuchang.com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리리 572-9
TEL : (031)358-5011-6 FAX : (031)358-5017

3천배 철야정진 차량운행 안내

◆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 7시~일요일 아침 7시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 ~ 9시)
숨차지 않고 험덕거리지 않으며 맥박이 빨라지지 않고 몸살나고 힘들고 졸림과 다리, 무릎,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절하는 동작에 호흡호 호흡법을 대입하는 교육을 2시간 받으시면 누구나 완벽하게 절할 수 있습니다.
◆ 3천배정진 : 500만배 성만한 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300배씩 10회로 매 시간 시작전에 마음다스리는 소침 법문을 듣고 끝내며 부처님전 감사 수행으로 마음 밝히고 축원 기도를 올리며 간절한 큰 마음으로 소원을 성취 하며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큰 업장이 녹아 내림을 체험한다.
◆ 차량운행 : 2003년 7월 26일 토요일
조계사앞 (4시)출발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7번출구 한국전력 앞(5시) 경유하여 법왕정사 도착
◆ 차량 예약문의 : 양 현숙 011)222-3329

백안봉자 108배 만일정사 **법왕정사**
수행 중상 도량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 7038 · 6736 (Fax 겸용)
○ 오시는길 : 양평 → 용문터널 → 단원 → 대명비발리파크 스키장 입구 청평방향 7Km
○ 버스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역 → 모곡종합차차 전화 0양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2. 무 명 수재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동방 · 바지 : 220,000 두 루 막 : 180,000
3. 모 시 료 (올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 루 막 : 150,000
4. 면 래우사	특징 · 세탁시 물 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동방 · 바지 : 160,000 두 루 막 : 130,000
5. 장 삼	특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셔틀룩 : 200,000
6. 신 도 복 (단체주문분합니다)	조끼 · 바지 (모직화색) : 60,000
7. 서츠 (차이나 라온드) · 걸방 · 손가방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아빌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병방 입구)
38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률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 ▶1965년 홍성대학교(현 홍익대학교) 약학과 졸업
- ▶1997년 홍재학 연구소 설립
-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제일영양학 연구경 서울대학교 (한성당노 연구실) 겸임)
-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